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요한 14:1 로 6 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 :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 :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한복음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생을 살아 가는 데는 극한상황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반과 존재 자체가 뿌리 채 흔들리는 위급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 평생 살아 가는데 있어서 누구나 한번 이상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 복음 14 장 1-6 에서 예수님은 극한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1 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 하십니다.

이 구절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극한 상황 앞에서 근심에 사로 잡혀 있습니다. 더욱이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를 옆에 놓고 근심에 쌓여 있으니 정신적으로도 공황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까닭을 알기 위해선 우선 뒷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출세를 해볼까 해서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leader 인 예수님이 임금이 될 날을 기다리며, 고생 고생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된다고 하는 것은 공민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종교적 특권이나 법적 보호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기들도 한자리 할 생각에 고생도 참고, 그러나 때로는 자기네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12 제자 중에 들어가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나아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의 한 아들은 우편에, 다른 아들은 좌편에 안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치맛 바람을 일으키며, 벼슬 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는, 이들은 100% 순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인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경향각지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자여**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요 12:12-19).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서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곧 왕위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꿈에 그리던 벼슬 길에 오르게 되나 보다 하며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은 고사하고, 또다시 몸을 숨기십니다. 그 다음 날 저녁에는 왕이 되실 준비는 안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내가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면서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더니, 가롯 유다에게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가롯 유다는 어데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길, 잠시 동안만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 잠시 후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실망을 하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한복음 13:36) 물으니, 예수님은,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 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 오리라**(요한복음 13:36).

이제 제자들의 생각에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닥치고 있는데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젠 고생 끝이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자리 하게되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벼슬은 고사하고 천길 땅속으로 빠져 들어 가는 것만 같습니다. 실망의 구렁텅이로 점점 가라 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은 태풍에 풍랑이 일어나듯 근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근심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근심부터 치우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불신앙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부터 옵니다.

이런 불신앙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해봤자 응답이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근심부터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이런 명령형은 우리가 먼저 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 일차적으로 근심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근심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 내어 불신앙을 회개함으로 의심을 제거하는 것이 급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극한 상황 중에 있는 제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touch 하질 않으시고, **비실제적인 문제만 말씀**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은 다 이차적입니다. 발등에 불이 붙어 있는데, 천국은 무슨 천국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극한 상황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 영원한 해결책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의 근저에 깔려 있는 모든 근심 걱정과 두려움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책이라고

제시되는 다른 모든 것은 임시처방전일 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생의 확신이 자신의 마음 속에서 넘실 대면 이런 걱정은 뿌리채 날아 갑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능력으로 자기 안에 역사할 때 거기에 부딪히면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가루가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14:2-3 절이 어떻게 극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3 차원의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더 크고 영원한 4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늘나라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며, 꿈의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단번에 날려 버리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삶은 행복과 기쁨으로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경건한 생활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처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다 마치시고 하늘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노고를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 그 자리가 우리가 장래에 있을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구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미래에 있을 곳이 확실해졌으며, 소망과 보장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 :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의 몸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하심으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써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력이 있어 현재의 근심과 걱정을 단숨에 날려 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것을 굳세고 견고하게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 :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고 가신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압니다.

이것은 사람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발자취입니다.

영원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역사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 안에서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말씀이며, 이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천기는 앎을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알지 못하느냐” 하신 시대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선 이 세상의 삶의 차원이 바뀌어 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은 다 이차적입니다” 하면서

발등에 불이 번저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마음이 묶여져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어느날 성자프란시스가 그의 밭에서 호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어느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석양 무렵에 죽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밭에서 호미질을 끝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큰일 났네 뭐가 났네” 할지라도 성 후란시스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이에서 가장 큰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관심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근심을 제조하는 공장이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가신 곳, 하나님 보좌 우편, 그 곳이 어디인 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생명 안에서 왕 노릇을 하며 살아 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아는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 갑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감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 : 5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요한복음 14 : 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옆에 놓고,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하는 도마의 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마에 대한 기사는 요한 복음 11:16, 14:5, 20:25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야기는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한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의심이 많은 사람 하면 도마를 꼽습니다. 도마가 이런 불명예를 얻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 가신 후, 다른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요한복음 20 : 25 --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한 말에** 기인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도마 하면 의심하는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 : 27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고 하시자 도마는,

요한복음 20 : 28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본 후에야 믿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할지라도 그는 습관성 회의 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는 믿기 전에 그의 의심을 완전히 표현하고 그 후에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해답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의심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에 의해,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가든지 불신앙으로 후퇴합니다. 도마는 의심을 통해 확고한 믿음에 서고 앞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도마에 있어서 의심은 과정입니다. 의심은 마치 한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아서 영원히 그대로 있지는 못합니다. 의심의 자리는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할 장소는 아닙니다. 의심은 질문을 유발하고 결정을 촉구합니다. **질문없는 불신보다 시끄러운 의심이 신앙 성장을 위해 좋은 것입니다.**

왜? 어째서? 하는 질문은 신앙인에 있어서 마음을 바꾸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확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의심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답이 찾아지면 확고한 신념에 서는 도마의 성격은 요한복음 11 장에서 확실히 보여 줍니다. 요한 복음 11 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빠져 나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요한복음 11 : 8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하면서 말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로 가려 하나니까** 하는 말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베다니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죽이려고 기다리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다시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 가자고 권하십니다. 제자들은 죽을가 두려워 망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 :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며 망설일 때 도마가 혼자 나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1 : 16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도마가 앞장에 서서 주님을 따르자고 독려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죽을 각오로 따르자는 것입니다. 도마는 이왕 세상에 태어 난 것 확끈하게 한 번 살자는 것입니다. 시냇물에 조약돌을 담갔다 꺼낸 것처럼 흐리멍텅하지 말고 확끈하게 신앙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을 통해 질문을 하고, 답이 찾아지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 가는 사람입니다. 도마의 이런 일관된 성격은, 느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아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주관이 분명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옳다고 판단이 서면 서슴없이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14:5 에서 도마가

요한복음 14 : 5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하고 질문한 것은, 습관성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는 다음 이야기로 제 설교를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쁜 새 한 쌍이 한적한 곳, 낮은 나뭇가지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 마차에 벼짚을 가득 싣고, 농부가 그 밑을 지나가면서, 다 되어 가는 동우리를 망가뜨렸습니다.

새들은 다시 집을 짓기 시작하여, 그날 오후에는 거의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황혼 때 농부 한 사람이 지게에 나무를 가득 지고 그 밭을 지나갔습니다. 위로 뻗은 나뭇가지에 새 둥우리가 걸려 무너졌습니다.

새들은 다음 날 또 집을 지었습니다. 낮에 개구장자들이 그 밭을 지나다가 매미채로 새집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동안 숲속이 조용한 틈에 새들은 그곳에 둥우리를 만들고 알을 낳아 새끼를 부화시켰습니다. 귀여운 새끼 네 마리가 예쁜 주둥이를 벌리고 먹이를 받아 먹는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한 가정에 무서운 침입자가 찾아 왔습니다. 커다란 뱀 한 마리가 숲 속을 지나가다 낮은 곳에 있는 둥우리를 보고 나무에 기어올라, 새끼 네 마리를 모두 잡아 먹었습니다.

몇 차례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면, 낮은 곳에 집을 짓는 것이 위험한 줄 알고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엄청난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는 새들만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낮은 곳에 집을 짓고 최악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더욱 미련하다 할 것입니다.

높은 곳을 보지 못했던 새 둥지가 불행의 운상인 것처럼, 땅만을 생각하는 신앙인의 처세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집은 높은 곳으로 옮겨 지어야 하고 신앙인의 처소는 하나님 보좌 앞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믿음이 저와 여러 분의 인생살이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까?

인생관을 바꾸어 놓습니까?

요한복음 14 :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 :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계신 분은 모두 도마처럼

의심에서 확신으로, 땅에서 천국으로 집을 옮기는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